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리적 접근에 의한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효 정

심리적 접근에 의한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효 정

인 준 서

김효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과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미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의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을 표출하고 있다. 즉, 사회적 제한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자기표현의 배출구와 다양한 형식의 정서적 순화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으로 정서적 순화를 할 수 있다면, 미술활동-미술교육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선의 과업으로 삼아야 할 청소년기에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입시 우선주의 교육으로 획일적인 제도로 굳어져 최근에는 예술과목(음악, 미술)이 선택과목으로 축소되었고, 주요교과의 입시 우선주의 교육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은 가치관 혼란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탈선과 비행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청소년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의 정서발달의 성장과정 중 중요한 단계인 청소년기(학습자)의 특징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 정서 순화로서 미술활동의 순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또한 감성발현에 의한 정서순화 그리고 감성지능과 미술교육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 미술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방안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절차	3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4
II. 청소년과 감성 교육	5
1. 정서적 불안정과 인간관계 확대	5
2. 심리적 독립 및 자아정체성 탐색시기	12
3. 청소년기 감성교육의 필요성	14
III. 감성 교육으로서의 미술	19
1. 정서 순화로서의 미술의 기능	19
2.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의미와 효과	19
3. 미술교육이 청소년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	24
IV.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미술교육 방안	34
1. 현행 미술 교육 프로그램	34
(1). 현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34
(2). 미술교육 필요성과 개선방안	37
2. 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50
(1). 감성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50

(2). 놀이 유형의 프로그램 52
(3). 무의식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 56
(4). 자아개념을 위한 프로그램 57

V. 결 론 59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예	50
〈표〉-2 감각을 자극하는 기법놀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	52
〈표〉-3 연상놀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	53
〈표〉-4 물, 바람, 모래를 이용한 놀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예	54
〈표〉-5 역할놀이 프로그램 예	55
〈표〉-6 무의식적 표현 프로그램 예	56
〈표〉-7 자아개념 프로그램 예	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 내는 데 있다. 인간다운 인간이란 지적, 정의적, 심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전인적 인간을 말한다. 즉, 전체적으로 잘 조화된 인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적인 교과학습, 기능이나 기술의 학습이 아닌 인격적 통합에 역점을 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개개인의 최대한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는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주의적인 교육을 말한다.

미술 교육은 미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미술가를 기르려는 교육과, 미술을 수단으로 하는 미술을 통한 보통교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미술을 가르친다는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지만, 후자는 인격 발달을 돕는다는 간접적이고 교양적인 성격을 띤다.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은 하나의 교과로서 전문적인 미술을 양성하기 보다는 미술을 통한 인격 형성이라는 후자의 성격을 가진다. 즉, 미술과 교육은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교과인 것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특성은 사회적 제한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자기표현의 배출구와 다양한 형식의 정서적 순화방법이다.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으로 정서적 순화를 할 수 있다면, 미술활동-미술교육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선의 과업으로 삼아야 할 청소년기에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소외현상이나 생명경시현상들은 미술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등학교에서 미술교과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형식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심리발달에 미치는 미술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하며 이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살펴 볼 것이며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그들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미술로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치유적인 효과의 미술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선진국에서의 예술교육이 전에 없이 강화되는 문화예술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오히려 소외되며 소멸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 반하여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그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미술교육의 목적인 ‘전인적 인간형성’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기의 특징과 청소년 심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그들이 버릇없고 반항적인 문제아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국가적 자원이며 또한 자기 삶의 주체자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동하여 미래에 대해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발달적인 존재로 재인식 되는데 미술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뿐 아닌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고 매우 중요한 시점인 청소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한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청소년의 정의 및 의식구조를 알아보고, 청소년기에 겪는 몇 가지의 부적응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감성교육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청소년 감성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해 본다.

셋째,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 중 교육적 효과에 의해 변화 및 예방이 가능한 부면(部面)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미술이 어떻게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넷째, 미술교육에서 미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 미술교육과 치료가 공존할 수 있는 접점에서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감성 교육프로그램을 알아본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미술교육의 중등교육 (청소년)에 제한한다.

둘째, 모든 청소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발달단계의 평균적 특징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수업방법이 다른 수업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업방법이 실제 수업에 적용될 때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II. 청소년과 감성 교육

1. 정서적 불안정과 인간관계 확대

먼저 이장에서는 중등교육의 학습자인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청소년이란 소년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령은 10대 후반 정도가 된다. 육체적 및 정신적 과도기인 만큼 이 시기
는 인격형성 및 육체적형성에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춘기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사춘기란 육체적으로 2차 성징이 발현하여 몸의 성적기
능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를 말한다.

청소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
으로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청소년기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 과도기, 주변인, 질풍노도기, 지불
유예기 등이 있다. 과도기란 청소년이 미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으
로 옮겨가는 시기를 주로 지칭한 것으로써 청소년은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해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기와 성인기
의 특성을 모두 지니게 된다, 주변인은 아동집단과 성인집단 사이에서 양
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동과 성인,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
하는 소속 불명의 세대라는 의미에서 주변인으로 불리 운다. 질풍노도기
란 갈등으로 가득 찬 격동의 시기란 의미로 Hall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을 논의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질풍노도기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변화와 심리적 갈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의 현
상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불유예

기란 신체적, 생리적 성숙과 심리적, 사회적 미숙에 따른 성장발달의 불균형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획득이 지연된 현상을 나타낸다. 지불유예기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론에서 언급된 용어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발견하게 하여 바람직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청소년의 특징으로, 청소년기는 심신양면에 걸쳐 급격히 변화하고 발달하여 성인으로 전환에 가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 청소년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그 기준 설정이 매우 모호하고 어려워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하기 어렵다. 사람의 성장이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기간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 않아 개인차가 있지만, 이 시기 나름대로 공통적인 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가장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는 신체적 성장이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성장은 유아기 다음으로 빨라서 청소년들은 해가 다르게 매년 신장이 크고 체중이 늘어난다. 이 성장은 신장과 체중 뿐 만 아니라 근육, 골격, 신경, 얼굴, 내장, 생식기관 등에도 나타난다. 특히, 내분비선의 활발한 분비로 인하여 성적 발육이 시작되어 제 2차 성장이 완성된다. 이러한 발달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청소년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방법에 서툴러 당황하게 되며, 호르몬의 변화로 심리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호기심과 부끄러움을 비롯한 변화에 따른 불쾌감, 정서 불안 및 공포와 죄의식, 용모에 대한 열등감까지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신체적 발달은 지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기

1)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1997) p16-17

에 적응문제에 원인을 가져오기도 한다.

둘째, 인지적 기능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발달과 함께 발달의 정점을 이루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발달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지식의 보다 나은 조직, 배열, 분석, 분류를 통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법의 달라진다.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서만 이해가 가능하였던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사고의 발달에 따라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가설을 형성하며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사고능력의 완성기로서 사물과 상황에 대한 추상적,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아동기 때 보다 더 넓고 풍부하며 복잡한 고차원 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지 발달적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이전과는 다른 청소년기 특유의 독특한 사고와 행동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은 형식적 사고²⁾의 발달로 자기 자신의 사고와 다른 사람의 사고를 개념화하며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사고와 정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아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은 매우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 청소년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생각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세계는 다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자신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있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똑같은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청소년은 자기의 생각은 무엇이나 옳으며 다른 모든 사람이 이

2) 형식적사고- 피아제가 제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지적능력을 의미함. 문제의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향의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에 동조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 흥미, 사상 등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자아의식은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발달적 속성의 하나로서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사실을 보다 성숙한 수준에서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은 추구하려는 이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사회규범이나 관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려고 한다. 때문에 현실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전통적 권위에 반항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이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좌절과 분노와 함께 가치관 갈등을 겪으면서 반항, 저항, 나아가 일탈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기에는 갑자기 변해가는 신체적 변화, 성적, 인지적 변화와 같은 2차 성징 출현과 함께 강하게 의식되는 성적 본능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조급하게 되며, 이외의 대외관계와 생활공간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미지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청소년이 갖는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과 그들의 생활세계가 갖는 주변의 성격, 소속집단의 변화에 따른 행동변화, 신체적, 성적 성숙과 심리적, 사회적 미성숙 간의 불균형, 기성세대와 가치관 차이, 학업과의 갈등 등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고민의 문제로 나타나면서 갈등과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 기술하는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적 기복이 심하고, 불안, 갈등, 고민 등으로 가득 찬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하여 하잘 것 없는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쉽

게 흥분하고 동요 되어서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행동하기 쉽다. 특히, 자기 자신의 정신적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이나 훈계, 간섭 등을 할 시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크게 불쾌해 하며 화를 내고 그들을 부정하게 반항한다. 나아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먼 심리적 거리를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내적인 틀 속에 고립하려고 한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남들이 모두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이에 따라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면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색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민감하여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 평가하면서 스스로 열등감, 무력감, 자기회의, 자신감 상실, 허탈감 등에 휩싸인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특징으로 격렬한 내적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그 세 번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극과 극을 달리는 자기 갈등적이고 모순된 감정을 보임으로써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의존과 독립, 무관심과 열정, 순종과 반항, 환희와 우울, 득의와 실망, 우월감과 열등감, 희망과 절망, 자기에와 자기혐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이상주의와 현실타협 등의 양극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단시간 내에 격렬한 변화를 자아낸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극단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이성적, 객관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 행동이 된다. 또한 감정의 양면성은 심신의 불균형을 조장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다소 무책임하며 중용이 없다. 이러한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는 대부분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성숙과 더불어 차츰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기르고 현실에 대한 적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서적 불안정은 그 상태에 있어서의 부적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

라 연쇄적인 정서적 혼란을 가져와서 자아를 손상시키고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 정서적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청소년들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격렬하고 파괴적이며 극단적인 부적응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서적 부적응은 우울증, 정서장애, 정체성장애, 약물남용, 자살, 가출, 도벽, 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장애와 비행 그리고 범죄행위로까지 발전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바람직한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성을 기본적인 특질로 하는 정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인관계, 사회적응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불안정과 함께 나타나는 청소년의 특징으로 인간관계 확대를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심리적인 이유가 일어난다. 유아기나 아동기에는 모든 것을 주로 부모에게 의존하여 맹목적으로 순응하면서 자라왔으나,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통제와 지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아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과 부모간의 상반된 견해는 갈등을 수반하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

청소년은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취급을 하려는 부모에게 자신의 정신적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 하면서 반발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다. 나아가 부모와 접촉을 기피하면서 자기만의 생활세계를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으려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지각이 강하여 남으로부터 구속당하거나 관철하려고 반항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 2의 반항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발달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 발달하게 된다. 부모와 대립적인 긴장감도 점차 완화되어 부모와 화해하게 되고 감정적인 의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최근 청소년을 언제까지나 어린이처럼 보호하고 감독하려는 부모의 과보호로 인하여 심리적 이유기와 성장이 연장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 청소년들이 자주성 없이 부모에게 지나친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 반대로 반항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청소년은 심리적 이유에 의해 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끈이 느슨해지면서 자신의 관심을 가정 밖으로 전환하여 가족 외의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 특히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종적 인간관계에 반하여 독립을 요구하는 청소년기에는 자유롭고 상호 대등한 수평적인 횡적 인간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친구 관계가 중요시 된다. 친구의 범위와 크기가 확대되어 다양한 친구를 보다 넓고 깊게 사귀면서 아동기 때와는 다른 새롭고 친숙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단순히 행동을 같이하면서 즐기고자 하는 놀이친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은 서로 뜻이 같고 자신의 요구나 고민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깊이 사귄 수 있는 친구를 요구한다. 비록 다수와의 친구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다수와의 외면적인 결합이 아닌 소수와의 내면적인, 즉 인격적인 결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친구관

계는 아동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로인해, 청소년은 점차 부모의 인정이나 지지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여 가정보다 학교나 사회에서 자기 또래와 함께 어울리려고 한다. 자기또래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 속에서 가능한 그들의 행동기준에 동조하여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친구들에 대한 애착심과 연대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친구의 기준이 부모나 사회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친구들을 더 의식하여 믿고 따르게 된다. 즉, 청소년기에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면서 그들의 자아정체감³⁾을 형성시키고 올바른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통찰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심리적 독립 및 자아정체성 탐색시기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 독립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과 인생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의문을 제기 하면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러한 고뇌 속에서 청소년들은 일관적으로 조화로운 자신의 모습-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또, 청소년기에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3) 자아정체감- 자신을 기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실체로 인식하는 개인의 느낌.

에 대한 명확한 정체의식이 형성된다. 이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기에 정체성 형성의 문제가 그 어느 시기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아정체성이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발달로 인하여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내적 충동이 증폭되면서 청소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아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의 양가적인 상황 속에서 청소년이 갖는 불확실한 지위로 인하여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문제보다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왜 존재하는가?’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문제에 더 심각하게 직면하게 된다.

셋째, 인지적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은 주로 가시적인 외적기준에 의하여 쉽게 자신을 평가하던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 보다 추상적이고 내재적인 자아를 탐색하게 된다.

넷째, 상급학교로의 진학 여부와 전공 선택, 취업과 직종 선택 등, 전에는 없었던 진로 문제에 부딪치면서 앞으로 삶의 방향에 대하여 잠정적이든 최종적이든 간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롯하여 존재의 가치, 삶의 목표와 의의를 찾게 된다. 자아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한 청소년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

을 명확하게 자각하게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인생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또렷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으로 매사에 충동적이고 동요하기 쉽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주위의 말에 쉽게 휩쓸리면서 비합리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정체성 발달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이탈과 비행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기 감성교육의 필요성

(1) 청소년의 욕구불만과 감성

“청소년은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욕구불만(frustration)의 연속이다. 이러한 욕구불만은 그들의 정서적 불만족과 불안을 가증시키며, 부정적이고 무미건조하며 반사회적인 정서를 확산시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인간의 욕구는 자기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식욕과 수면욕 등이 포함된 유기적 욕구(organic needs)와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며, 안정감과 승인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로 구별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회적 욕구가 현저하게 증가된다”.⁴⁾ 이러한 욕구의 만족과 불만족, 성공과 실패 등은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 또는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족이나 실패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게서. p 254.

청소년의 욕구불만은 대부분 그들의 생활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데, 가정에서의 부모와 원만치 못한 관계는 그들의 욕구불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가정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무관심이며, 그리고 이혼이나 별거, 재혼 등의 결손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모의 이기적 또는 부정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헌신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욕구 불만은 학교생활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학업에 대한 압박과 대인관계의 혼동은 그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욕구불만의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들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과 학교의 외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에 강력한 자원이란면 그것의 영향력이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거 또는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신념 및 지각체제를 변화시키고 개인적 능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욕구불만으로 인한 정서적 갈등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기 정서 장애

청소년기를 흔히 '심리적 격동기'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들은 신체발달이

나 인지발달 그리고 정서발달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역할기대에 있어서도 청소년기는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의존하는 어린 아이의 위치에서 한 몫을 하는 성인의 위치로 전환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기타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들 세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일시적 부적응 현상을 넘어서서 심각한 적응장애로 발전될 경우 그 장애와 피해는 치명적이 될 것이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불안정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성숙과 함께 좀 더 효과적인 적응방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사라짐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는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적응장애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 개인의 전 생애와 중요한 타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서장애는 그 자체가 반드시 심각한 심리장애 또는 적응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필요는 없겠으나, 이를 청소년기에 의례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수만도 없는 것이다.⁵⁾

청소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정서장애로는 불안과 공포, 강박개념, 우울 등이 있으며, 심각할 경우 정신분열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왜곡된 성격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5) 임승권. <정신위생>. 양서원. 1988. p86

(3)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건강

스트레스(stress)란 용어는 캐나다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Hans Sely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나, 아직도 개념의 모호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으로서 그것의 속성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일종의 자극으로 보는 관점과 반응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인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⁶⁾

첫째,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으로서 스트레스를 진단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의 의미와도 같다.

둘째, 스트레스를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개인이 능동적인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병원균만큼이나 직접적인 질병 유발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에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각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정서장애와 같은 생활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좀 더 부유한 사람보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가난과 관련된 긴장은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도시와 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는 일상적인 긴장에 노출된 많은 사

6) 한상철 외, <인간이해와 교육>. 중앙적성출판사. 1995. p171 ~ 172

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혈압과 이와 관련된 질병(심장발작, 고혈압성, 심장조건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관 연구는 스트레스가 다양한 유형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두 현상 간에 일관성 있는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1년 동안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미국인의 수가 약 70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관상질환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삶의 긴장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청소년들의 역할 갈등과 발달상의 긴장 그리고 학업성적과 입시로 대표되는 경쟁적 생활구조는 그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짓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건강과 심리적 부적응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성교육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III. 감성 교육으로서의 미술

1. 정서 순화로서의 미술의 기능

우리는 흔히 예술 활동이 감정의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며 슬픔을 감하거나, 기쁨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또, 어린아이들의 자신의 감정 표현에 있어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미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표현된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미술활동을 꼽을 수 있다. 미술활동은 거창한 역사 속에 시작된 것이 아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표현에 비롯된 것이다.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즐기는 낙서와 흠장난도 그 아이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끄적이는 낙서 또한 우리의 감정표현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일상생활에 쌓인 감정을 배출하는 배출구에 한 방법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은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이며, 그밖에 일상생활에서 쌓인 감정과 긴장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2.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의미와 효과

(1) 미술교육에서의 치료적 의미

미술교육에서는 미술치료처럼 문제 행동 및 부적응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하여 미술교육의 바탕 위에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미술치료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는 교육적 관점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는 교육자, 특히 미

미술교사 및 상담교사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켰다.

위와 같은 내용은 미술교육과 미술치료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이론가들의 주장들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술치료가 미술교육의 교수법적 관점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목시켜 발전하게 되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에서는 미술교육과 미술교수법이 자연묘사력, 외적인 아름다움과 균형을 중시한 반면, 20세기 초부터 미술교육자들은 그 시대의 미술주류가 된 표현주의화풍과 프로이트의 심층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미술교육에 그러한 관점들을 실제에 적용하였다.

즉, 20세기 초에는 아동의 어린이다운 감정을 미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전시대의 미술교수법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개혁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미술교육자로는 오스트리아의 치첵(Franz Cizda 1865-1946)⁷⁾을 들 수 있다. 그는 아동그림의 형식과 기법은 무엇보다 아동들이 외적인 영향에 방해 받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바우하우스⁸⁾의 교수였던 칸딘스키(Kandinsky, 1866-1944)도 1912년의 그의 저서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Uber das Geistige in der Kunst)에서 관찰과 감정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색채와 형태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합리적이고도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관찰과 직접적인 경험에 따른 미술적 표현의 강조는 미술교육과 교수법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방법을 미술치료에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7) 치첵- 미술교육자로 20세기 초기에 창조교육론이 대두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8) 바우하우스(bauhaus)는 건축가 그로피우스(Wlter Gropius)가 바이마르에 1919년에 설립한 공예, 건축, 디자인 등의 종합예술학교.

20세기에 들어와서 미술교육은 조형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료적 방향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때부터 미술활동이 미술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와 의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⁹⁾

역사적으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결합은 이분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미술교육은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능력향상을 목표로 한 인지적 훈련을 하는 기술적 접근을 유지해왔으며, 반대로 미술치료의 즉흥적 자아표현은 기술적 숙련보다는 직관적, 감정적 문제 해결을 이끌기 위한 연상적 표현을 이끈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케인(Cane)과 로웬펠드(Lowenfeld 1903-1960)같은 미술교육가들은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방법을 접목시키려고 했다. 이 두 선구자들은 치료적 미술교육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치료적 미술교육(therapeutic art education)”이란 단어는 로웬펠드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표현 “art education therapy”에서 유래되었다. 로웬펠드가 지적했듯이, 미술의 생명력과 그들의 동일성 감각사이의 상호 의존성은 중요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술은 크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케인도 미술에서 상동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이미지의 투영, 기억과 내적 체험을 통한 표현 등을 중요시하며 아동 미술을 지도하였다. 특히, 미술표현의 주제로서 감정, 환상 등을 강조하고 인지적인 대상을 가급적 그리지 않는 표현법을 고안해 내었다. 아울러 격렬한 갈등과 강박감 속에 파묻혀서 외계의 자극이나 인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이 방법이 유효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헨리(Henley, 1992)¹⁰⁾는 치료적 미술교육자에 대한 논의에서 이런 개념

9) 정여주. 진계서. p23~29

10) 룡아일랜드 대학에서 예술치료 프로그램 담당자이자 과잉 행동 장애(ADHD)와 관련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담당하는 한 정신 의학 단체의 임상감독. 미술 치료사와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예술 치료의 많은 측면들에 대해 폭넓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있다.

을 이야기 했다. 치료적 미술교육은 미술 제작과정의 치료적 장점을 인식하여 사용하는 미술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분석, 심리치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같은 분석적 지지를 대신하기 위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아동을 한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지지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며 진지하게 그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¹¹⁾

미술제작과정은 다양한 아동들의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매체이며 심리학적, 사회적, 미학적, 지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므로 치료적 미술교육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적,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과 아동기 행동, 교육, 미술에 대해 이해해야하며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효과성

미술활동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고, 배열하고, 붙이고, 색칠하며, 형태를 완성하는 유형으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미술활동과 관련되는 한 개인적인 경험은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느낌, 생각, 사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패라스케바스(Paraskevas)는 미술교육에서 이차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이 미술치료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미술교육이 미술치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보편적으로 단계적 수준을 밟는 미술교육과는 달리 미술치료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며 단계도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11) 최재영.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미술교육 접근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2. p174~175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미술치료에서 작품은 미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쟁적인 요소는 없다고 언급한다. 즉, 미술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자기발전이며, 이외에 자신의 경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반응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¹²⁾

여기에서, 미술교육의 치료적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의 개념과 미술교육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이 미적 요소와 기술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둔다면, 미술치료는 미적 요소나 기술의 습득은 치료목적에 종속적인 것이고 미술작업 ‘과정’ 자체에 좀 더 비중을 둔다.

둘째, 미술치료는 치료라는 의학적인 입장을 미술교육은 교육이라는 입장을 취하므로 서로 차이를 갖지만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보다는 과정상의 변화를 중시하고 그 과정상에는 창의성, 사고력 증진이나 안정감, 만족감 등의 감정적 목표가 중점으로 차지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미술의 두 개의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교육은 아동과 청소년 등 어떤 대상에 전반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술치료는 개선의 목적으로 개개의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이나 상태에 맞추어서 방법이나 접근이 달라진다. 물론 요즈음의 미술교육의 입장도 조금의 유동적 접근에서 미술치료와 유사하다고 하지만, 미술치료는 확실적인 계획이 절대 불가능하며, 교육적인 발전이 아닌 치료적인 개선이라는 점이 다르다.¹³⁾

그러나 크레이머는 미술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12) 최재영 외. <유아미술치료>, 수원여자대학. 2002 p59~60

13)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통한 미술치료 활용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23~24

통해 치료적인 방향으로의 미술을 발전 시켰다. 이것은 미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러한 매체에 대한 활용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술을 통해 학생과의 의사소통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이 이해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미술활동이 치료적 도움을 주고 미술치료에서 미술교육자의 이론과 연구를 도입하는 등 미술교육이 미술치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개발된 미술교육 방법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고 있다.

3. 미술교육이 청소년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

(1). 감성교육으로서의 미술

전 장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생리적,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혼동, 그리고 사회적 영향의 변화와 가치체계의 변화 등이 그들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즉, 청소년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경험하며, 이것은 곧 그들의 감성적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감성의 불안정은 청소년의 학교학습과 사회적응, 인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감성은 자아체험을 통해 각종 생활감정(life feeling)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¹⁴⁾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감성의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 감성발달을 위한 감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감성교육의 필요성과 감성 교육으로서의 미술에 대

14)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계서. p243

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감성의 개념과 감성의 교육적 가치

1) 감성의 개념

전통적인 학업성적 중심의 ‘지능지수(IQ)’ 개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능이론들이 다수 출연하였는데 그 이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위적인 검사 상황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의 능력을 중시하고 지능개념의 내용을 종래의 협소한 학업성적에서 사회적 지능, 창의성, 예술적 재능 등으로 확장시키며 지능연구에 있어서 인지적 기능 외에 창의적이고 동기적인 기능을 포함시켜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정신의 개념으로 지능을 폭 넓게 이해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이론 중 일반인들에게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EI) 혹은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 :EQ)로 알려진 개념은 1990년 심리학자인 Peter Salovey와 John May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보다 보편적인 관심거리로 부각된 것은 이들에 이혼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1995년 Goleman의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부터이다.¹⁵⁾

EI, EQ의 용어는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할 줄 알고 나아가 보다 나은 정서와 사고에 접근하여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Goleman은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에서 감성지능을 구성하

15) Emotional Intelligence - 체계적인 학술서라기보다 상담심리학자로서 그가 겪은 다양한 사례를 정서지능의 이론과 함께 엮어낸 사례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다. EI는 IQ로 측정되는 순수하게 인식적인 능력이나 학문적 지능에 보충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독특한 능력으로 묘사된다.

는 요인¹⁶⁾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기감정의 인식능력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부단히 관찰해 나가는 자각의 과정은 내면의 감정세계를 살펴 자기 인식을 명료화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과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 중추반응을 언어중추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서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 나가는 자기 관찰은 바로 감정의 홍수 속에 있더라도 자기의 감정을 중립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자기감정의 조절 능력이다. 감정이 없는 삶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장면에서 어울리는 적절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무미건조함과 소원함을 불러오게 된다. 반대로 통제에서 벗어난 감정은 과도함으로 치닫게 되어 우울함과 압도적인 불안, 광란적인 분노, 심각한 불안 등을 가져오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바뀐다. 감정의 상승과 하강은 삶의 풍미를 더해준다. 문제는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계산속에서 행복의 감각을 결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비율이다.

셋째, 자기 동기화의 능력이다. 감정적 혼란은 지적활동을 저해한다. 마음에 불안이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감정의 조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동기부여이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어떠한 일에 몰두하게 되기까지는 동기부여라는 감성지능은 다른 모든 능력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쪽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6) Daniel Goelman, 황태호 옮김, <감성지능 EQ>, 비전코리아, 1996

넷째, 감정이입 능력이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혼란을 겪는 공감각무능력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때 당혹스러워한다. 이처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증세는 감성지능의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결함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친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근원은 감정이입능력이기 때문이다. 정상인들에게 있어 감정이입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지성적 정신의 방식이 언어라면 감정적 정신의 방식은 비언어이다. 감정적 메시지의 90% 이상은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대인관계 능력이다. 타인에게 존재하는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능력이다.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표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표출의 법칙에는 몇 가지의 기본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누구인가 관련자가 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표현, 다른 하나는 감정의 확대를 통해 자기가 느낀 바를 과장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의 감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상황에 의해 때에 따라서는 싫어도 좋다고 하거나 좋아도 싫다고 하는 표현이다. 감성지능에는 정서적 교류를 관리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사람들 사이에는 감성이 전이된다. 감성의 전이는 주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감정이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전이된다. 또한 감정의 전이는 비언어적인 몸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나는데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 감정의 전이가 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EQ를 대표하는 정서의 지적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자기감정 인식능력’과 자신의 감정의 상태나 느낌을 자신의 의도대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감정 조절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 상태를 또 다른 의미 있는 사고과정의 촉진제로 활용하

는 ‘자기 동기화의 능력’,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여 자신의 감정으로 내면화시키는 ‘감정이입능력’을 말하며 이 모든 능력에 종합적으로 관계하면서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기술’을 포함한다.

2) 감성교육의 영향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지능지수(IQ)가 사회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권에서 지성과 분리되어 억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감성이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수용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한 IQ를 뛰어넘어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⁷⁾

“이처럼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던 교육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함을 실감하면서 감성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감성(EQ)위주의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다. EQ는 IQ와는 달리 개인의 능력이 아닌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위한 능력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EQ의 계발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⁸⁾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인지적 능력만큼 감성적 능력이 중요하며 더욱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도 감성과 인성에 바탕을 둔 전인교육이 뿌리 내려야 한다.

인류에게 있어 감성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능력의 보고이며, 이러한 감성을 어떻게 계발하느냐의 문제는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아성취를 이루어가는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17) 김경식. 전개서. p23~24

18) 최용환 <미술교육이 EQ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원 논문, 2003, p8

한국인의 대부분이 6.25이후 현대 교육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EQ 교육보다는 IQ 위주의 교육을 받아오면서 IQ위주의 교육은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Q교육 없이 IQ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치열한 경쟁 의식 속에서 학문만을 공부했기 때문에 매사에 인간관계에 정이 없고 차갑게 되기 쉽다.¹⁹⁾

이러한 IQ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생길 경우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전문적 지식을 많이 지니고 있는 전문가도 머리에 담아두기만 하고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지식이 될 것이다. 이에 실생활에 쓸모 있게 적용하려면 남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필수이다. 여기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IQ가 아니라 EQ이다.

건강한 감성을 기반으로 한 감성교육의 영향은 지적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며, 인간을 보는 관점의 시각을 재정립 할 수 있다. 또, 인성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대중의 요구에 의해 형성되어진 개념²⁰⁾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와 가치는 매우 클 것이며, 그로인해 감성교육의 영향력 또한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감성지능과 미술교육의 관련성

1) 자기감정 인식능력, 감정이입능력과 미술의 감상교육

미술에서의 '감상'과 '자기감정 인식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타인의

19) 현용수. 전개서. p263

20) 최용환. 전개서. p8.

감정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은 그 대상을 향해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일 때 발휘될 수 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감정인식이 있을 때 보다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술 작품을 감상 할 때 자신의 내부에 기억되어진 형상이나 감정, 느낌을 무의식중에 찾으려고 한다. 마치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슬픈 음악을 듣게 된다면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정 이입이 되고, 그 음악을 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술 작품에서도 작품 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감상자 자기 자신이 경험으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느낌의 감정이 작품 안에서 느껴지고 실감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될 때 감상자는 보다 의미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의 ‘감상’과 ‘자기 감정 인식능력’은 그 인식의 과정에서 매우 유사한 관계를 보인다. 즉 ‘감상’과 ‘자기 감정 인식능력’은 대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순수하게 받아들여려는 자세로부터 시작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오감을 통해 얻어지는 감정으로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자기인식이 있을 때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을 이끌어 진정한 의미의 감상과 타인의 정서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자기감정 조절 능력과 미술의 감상교육

미술의 ‘감상’교육은 ‘자기감정 조절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술의 ‘감상’은 다양한 정서표현을 보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또, 감상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며 나아가 생활 속에서 미의식을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감정 조절능력’은 자신의 풍부한 정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객관적 인식을 한 후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정서로 스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의 ‘감상’과 ‘자기감정 조절 능력’은 풍부한 정서 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정서표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정서를 아름다운 정서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미술의 감상교육은 다양한 감정이 표현된 미술작품을 보면서 정서를 기를 수 있고 감상 후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술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미적 고찰을 하는 과정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자아성찰의 인식작용을 훈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술의 ‘감상’교육은 다양한 정서의 함양과 ‘자기감정 조절 능력’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자기 동기화 능력과 미술의 표현 교육

미술이란 일상의 모든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며, 보여 지는 세계뿐만 아니라 잠재된 인간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는 미술의 표현교육은 EQ에 있어 ‘자기 동기화의 능력’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술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서 상태를 형태, 색채로 투영시킨다는 사실은 미술교육의 ‘표현’영역과 ‘자기 동기화의 능력’의 깊은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다.

EQ에 있어 ‘자기 동기화의 능력’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나 언어, 모습 및 행동을 통해서나 디자인, 예술 작품 등을 보면서 자신의 신체적인 상태나 감정, 생각에 내포된 정서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발생되는 새로운 정서를 포현하도록 부추기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미술은 표현의 결과보다 표현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

습자들은 그림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과정에서 억눌렀던 정서의 벽을 제거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작업을 통하여 자신을 실현할 수도 있다.²¹⁾ 이러한 미술의 표현 속에 나타나는 창의성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이고 연속된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인 욕구나 직관,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EQ에 있어서 ‘자기 동기화의 능력’은 미술에 있어 창의성의 개념과 유사하다. ‘자기 동기화의 능력’은 무언가 자신이 해 내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를 부추기는 능력을 말한다. 정서는 내적 능력을 활용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정서는 우리의 능력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잠재울 수도 있다.²²⁾ 예를 들어 미술에 소질이 없는 학습자가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동기를 부추기게 되고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이때, 이것은 정서 활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성의 표현과 미술, 창의적인 표현과 EQ에 있어 ‘자기 동기화의 능력’은 상호영향 관계에 있다. 즉, 정서에 의해 미술 표현이 가능하고, 간접 경험을 갖게 하여 자신의 의지를 동기화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4) 자기감정 조절능력과 미술의 이해교육

미술의 이해가 직관적인 느낌에서 시작되듯이 EQ도 감정에 기초한 정서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정서의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미술의 이해교육과 EQ도 상호 유사한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의 ‘이해’교육은 일반적으로 조형의 이해, 미학, 미술가의 이해교육이 그 내용에 해당한다.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은 점, 선, 면, 색 등의 조형요소에 해당하며 ‘자기감정 조절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21)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4 p307~308

22) Peter Salovey & John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서울대교육연구소, 1996 p11~12

으며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기를 수 있게 한다.

미학을 미술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미의 본질을 탐구하고 세계를 미적으로 파악하는 눈을 갖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적 교육은 미적 향수, 미적 경험, 미적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²³⁾ 이것은 EQ에 있어 ‘자기감정 조절 능력’이나 ‘자기감정 인식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미적 향수를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서의 조절 능력을 보다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적향수를 가증하게 하는 미학교육은 감성지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5) 대인관계능력과 미술의 이해교육

우리는 미술사를 통해 작품의 이해를 포함하여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작가의 삶을 느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사를 배우면서 작가와 그의 인간관계를 알게 되고 인간을 향한 작가의 시각을 배우게 된다.

미술사의 ‘이해’는 ‘대인관계능력’에 해당하는 정서지능에 영향을 준다. EQ에 있어 ‘대인관계능력’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고 어루만져주면서 깊은 인간적 밀착 감을 갖게 하는 미묘한 감정, 동기, 관심 따위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감식력과 사회적 분석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사의 교육과 감성지능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미술사를 배우면서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림을 통해 화가의 시각을 배우게 된다. 그 내용이 교훈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인간적 밀착감이나 감식력과 분석력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미술의 이해교육은 ‘대인관계능력’에 도움을 주고 감성지능의 향상을 가져온다.

23)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4 p400~401

IV.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미술교육 방안

1. 현행 미술 교육

(1). 현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최근 서양의 경우에는 예술 문화를 부흥시키고 그 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컴퓨터 문명 시대를 곧 문화의 시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7년에는 ‘창조적 미국’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것의 주요 내용은 21세기에 도 미국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위치를 유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술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등 4개의 예술과목의 학습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의도의 구체적 반영의 하나다.²⁴⁾

영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전통적인 지방 분권식의 교육과정 존재방식을 수정하여 중앙집권적 특성을 살려나가고 있는데, 새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공동필수 과목으로 미술, 음악, 체육을 포함시키고 미술의 경우는 ‘미술과 디자인’으로 그 내용을 편성하여 지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청과 개별학교 나름대로 미술을 다루거나 맡거나 하던 70년대 이전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인 것이다. 1998년에는 문화부와 교육고용부가 협동으로 창의 및 문화교육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NACCE)를 두고, 1999년에는 <우리 미래의 모든 것: 창의성. 문화. 교육>이라는 정책방향 지침을 발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의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 했을 때 절

24) 유혜경, <문화의 세기를 지향한 예술교육 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2000. p22.

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1시간 남짓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1학년 때만 주당 1시간으로, 이 시간은 실제로 효과적인 교육으로서의 운영은 힘든 실정이며, 형식적인 교육이 되기 쉽다. 중학교 과정에서도 미술교육은 1,2학년은 연 32주로 주당 1시간이며 3학년은 6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어, 수학이나 영어, 과학 등의 과목들은 최소 102~170시간으로 되어있다. 일선의 중학교에서 1학기당 각종 행사들(소풍, 체육대회, 개교기념일 등)을 제외하면 26~28시간 정도인데 현행 교과과정(실기 80%, 이론 20%)에서 적어도 실기시간은 주당 3시간은 소요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나 지금의 실정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이런 운영과 편성이 공식화, 합법화 되어 버렸다. 중학교의 경우 1,2학년에는 주당 1시간, 3학년에는 2시간을 지도하게 되어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기본 공통과정의 경우 2단위로서 1학년 때 1.2학기에 각각 1시간씩 지도하거나, 1학기에 2시간씩 지도해서 끝내버리게 되어있고 선택과정에서 음악 등 다른 과목들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지도하기 힘든 실정이다. 앞에서 예로 든 미국이나 영국의 ‘강화’ 추세와는 달리 완전히 반대로 ‘악화’ 경행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법정 미술시간을 잘 지켜 지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시간의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학교는 주당 45분이 1시간인데 출석을 점검하고, 제재에 대한 동기화를 하고 나면 30분가량 남는데 기 30분동안 그리거나 만드는 미술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감상과 실기를 3:7 정도로 해서 ‘표현’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예술교과의 기본 패턴이라고 보면 처음부터 시수가 확보 안 되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등학교 미술교과는 무시되어지기 쉽고 그 교육 시간을 지켜가기 힘든 것이다. 형식적인 교육과정, 형식적인 시간

표 운영, 형식적인 시험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실상인 것이다. 선진국에서 앞 다투어 강조하는 예술교육을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이 죽어가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원인은 대학입시의 병폐이다. 입시가 지필시험으로 치러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은 도덕적 습관이나 예술적 표현 행위와 같은 가치나 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무시되고 끝내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미술을 전공할 청소년을 선발하는 미술대학의 입시를 제외한 정규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미술교육이 통째로 왜곡되어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시간수의 부족이나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술’이 시험지 위에 나타나는 ‘단편적, 외관적, 부수적 관련 지식’ 중심으로 변질돼 버린 것 에도 원인이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미술을 위한 미술도, 문화를 위한 미술도, 더구나 인성과 창의성을 위한 미술이 아닌,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미술이 학교교육과정과 시간운영의 실체를 점령해 버린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예술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의 인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시 교육에 대한 왜곡된 편견 때문이며 그것은 또다시 지식과 인생관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미술을 ‘장식적 기술’로 보고 예술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소유와 권력의 장악의 한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지식관에서 연유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유 및 권력지향의 인생관,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등미술교육을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 미술 교육 필요성과 개선방안

1). 중등학교 미술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방안

가. 개성 표현의 신장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사교의 과정이라든가 연구의 과정, 창조의 과정 등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주입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지식과 기능위주의 교육이 결국 고등 정신 기능인 ‘정서나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은 등한시하고 인간의 감성을 죽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자기표현이나 자아완성의 인격 교육이며, 지. 정. 의가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를 육성시키는 전인교육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외계를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고 독창적으로 상상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창조 교육에서 유의할 일은 너무 고도의 창조 의욕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면 오히려 활동이 경화되어 표현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두려워 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 표현의 질서, 재료의 발견 등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새롭고, 자기의 주관적 생각으로 발전시켜 표현해 내면 이를 창조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생에게 있어서의 작은 발전은 곧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개성이 없으면 성숙할수록 살아가는 희망을 잃는 원인이 되며, 건전한 사회는 다양한 개성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성의 ‘개’라는 것을 전체에 대한 부분임을 자가하는 일이 선

행되어야 하며, 방종 방심의 개성은 오히려 전체를 깨고 해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미술의 주제는 미술 경험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미리 결정된 소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이상과 표현욕구, 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 자신에 대한 태도, 희망적인 생각,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태도와 같은 모든 것들은 주제의 근본 자료가 된다. 또한 주제는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에 학생을 관련시키는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을 위한 필요에서 발생해야 한다.

기능의 발달 또한 중등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은 미술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포부와 인애, 자아에 대한 비판, 낭만과 모험에 대한 욕구 등, 개별적인 개성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적 기교를 발달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험적 태도는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성이 다.²⁵⁾

Herbert Read는 예술을 통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을 높이고 인간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였다.²⁶⁾ 이는 인간의 정신 활동 중 예술이 가장 원초적인 정신 활동임을 알 수 있고, 예술 활동의 여러 분야가 있으나 창조적인 연구의 모델로 미술 창조 활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원초적 창의성은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인간을 자기 자신일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자아실현적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체화하는 창조력은 대행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최고 정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성이 인간성의 본질에 내재해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획일화가 아닌 주체적

25) 김민근. <어린이 조형활동 창조>, 미술세계 1985. p.153

26) Victor Lowenfeld W Lamitain. 미진사. 1998, 서울, p.256

27) 김춘일. <미술교육론> 홍익사 1985, 서울, p.254

인간화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²⁸⁾

어떠한 미술활동이라든지 기존의 질서와 포용의 범위가 있다. 따라서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여건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개성이 없으면 감각이 없는 기능공과 같으므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찾아 전체와 융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성적 표현은 독자적 감정 체험에서 오는 것이니 만큼 순수한 개성적 표현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나. 미적 감각의 육성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청소년의 사고와 정서, 환경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Cole박사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정서적인 관심과 자기표현을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되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긴장을 가져온다. 그들은 음악, 미술, 연극, 작문 과 같은 과목에 대한 실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학문에서처럼 이러한 과목들은 그 과목이 바로 전공인 몇몇 청소년들과 그것이 자기표현의 수단인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작품의 대상은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열중할 수 있도록 자기표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²⁹⁾

미술표현 활동 과정은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른 가치관과 흥미, 욕구 등으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학습의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다. 굴드너(Gouldner)는 인간을 가치와 제도를 수용하고 창조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은 포함하며, 그것이야말로

28) 한명희, <창조성 교육>, <새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86. 서울 p.91~93

29) Luella Col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Toet, Rinehart & Winston Inc, 1950. p.35

가치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⁰⁾

미적 감각은 자아표현을 통해서,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면서, 즐겁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서히 육성된다. 미적 감각이라 함은 미적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며 모든 사물과 환경을 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한다.

제반의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삶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시각 환경을 미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미적 감각을 기르도록 미술 교육을 해야 한다.³¹⁾

미적 감각의 육성은 미술 작품 전반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하나로 작용되어지는 것이기에 미적 감각은 단순히 표면적 조화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치 판단과 철학적 사고 과정, 대인 관계의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의 감정은 아름다움을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과 통한다. 그만큼 미적 감각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고 동시에 현실을 아름답고 슬기롭게 가꾸는 힘이 된다. 그것은 즐거운 표현 활동 속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표현활동의 첫째 과정은 사물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느껴서 수용하는 감수 활동이며 다음 과정은 표현과정이다.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사물의 의미를 자기만의 즐거운 방법과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감성과 표현의 조화에서 얻어지는 것이 곧 만족감이다. 이것을 통하여 미적 감각이 길러지고 감정이 순화된다. 그러므로 감수성을 예민하게 한다는 것은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표현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주변의 사물을 자세히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도록해

30) Apple M W 박부권, 이해영 역, <교육과 이데올로기>. 한길사 1987, 서울, p131

31) 전성수, <바람직한 미술과 교수 방안에 관한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집.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5. p.27

주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욕구와 관심을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것의 반영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줄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 출발하여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³²⁾

김춘일³³⁾은 미술교육이 교육받는 대상에 따라 성격의 변화를 강조하며, 미술교육은 “첫째, 예술 교육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둘째, 보통 교육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셋째, 자립적인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며 미술 교육의 본질의 핵심을 지적하였다.

미술은 사물을 봄으로서 느낌을 얻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생활 주변에 있는 환경과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관찰하고 느끼는 일은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려면 우선 볼 수 있는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힘이 있어야 하며, 그 보는 힘이 있을 때 사물은 항상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보는 힘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미적 감각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그에 따른 매체가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적 감각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해, 표현, 감상의 통합적인 지도가 전개되어 교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법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심미적 태도 육성

교육부에서 세운 미술과의 기본 목표는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

32) 전만경, <고등학생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p.4~16, 31~32

33) 김춘일, <미술교육론>. 기린원, 1993. 서울.

의성을 계발하여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이다. 정서는 인간 내면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적인 실마리와 반응을 말한다. 건전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불행한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 미적 정서란 아름다움을 느끼고 친밀하게 하는 마음으로 미적 감각을 키우고 그 감각으로 감정의 평형을 이루며 아름다운 품성을 갖게 하는 데 뜻이 있다. 그것은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즐겁게 표현하고 감상하는 중에 가장 많이 얻어진다.

건전한 정서 계발은 곧 개성의 건전한 표출에서 얻어지는 것인 만큼 자기 감각을 표현에 대담하게 접근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미술 활동, 즉 조형 활동은 개성과 감정의 바탕 위에 작품이라는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다.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상력, 사고력, 논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이 <라디오 그리기>라는 소묘를 할 경우 그 학생은 그 라디오의 스피커의 위치, 버튼, 전파선과 같은 다양한 모양과 구도를 이해하여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미술활동을 할 때 작품으로 완성시키기까지는 합리적인 사고력과 독창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또한 재료와 용구를 사용할 줄 알고, 어떠한 공간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형 활동을 통하여 지적 사고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게 되어 사회성도 성장하게 된다. 조형 활동을 함으로서 집중되는 생각과 주변 사물에 대한 애정이 사회성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가치관 형성을 이룰 수 있다. 학생은 미술의 조형적 표현과 감상을 통해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원만하고 전인적인 인격을 함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술 교육의 핵심은 자기 개성의 계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

게 잘 표현했는가에 있다. 진실한 감정의 표현은 진지함과 성실함에서 자기를 쏟아 진실하게 표현했을 때만 나타난다. 거짓된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에는 진실한 감정이 없으며 죽은 그림과 같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림’, ‘생명력이 있는 그림’은 묘사력이 풍부한 표현력이 좋은 기능주의의 그림이 아닌, 자기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려는 의욕 자체에서 나타나는 생동감이 있는 그림이며 그 그림은 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학생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훌륭한 화가가 되거나 미술의 전공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자신의 생명감을 느끼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또 성실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데 뜻이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미술 활동 시 필요한 특정한 기술이나 작은 기능들은 학생들이 자신을 즐겁게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한 다음에 지도해도 늦지 않다.

미술은 인간 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의 진실한 생명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미술은 환경과 작가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미술의 감상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와 다른 진실한 생명과 참된 정신을 무한히 배울 수 있고, 수많은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배워서 참다운 자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다.

결국 미술작품의 감상은 작가의 정신과 조형의 요소를 찾아서 깊은 애정으로 대하게 하여 그 작품의 작가를 느끼고 그 심정을 읽고자 애정깊게 바라볼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표현 활동이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독자적인 개성의 발현과 창의적인 발상은 어떤 개념이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개방적이고 유창한 것이다. 창조적이란 인간의 정신의 원동력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의 문명을 이룩하는 힘인 것이다. 오스본 (A F Osborne)

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분석력, 판단력, 구현력, 아이디어 산출력 등으로 보고, 이중에서 창의력이야 말로 컴퓨터를 대신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정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심리적인 해방감이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동기유발 없이 그림을 그리면 학생의 감정은 메말라지고 상상력도 둔화되어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릴 수 없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제도나 사회풍토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효과적인 자기 표현 방법(assertiveness)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사소통(communication)교육의 결핍에 기이한 개방학습의 부재인 것이다.³⁵⁾

미술을 통한 심미적인 인간을 기르는 교육은 미술의 고유한 교육 기능이 개성의 신장, 창조성의 육성, 감성적 인식 능력 육성, 시각적 사고에 의한 인지적 능력 육성 등에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은 미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구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조화로운 인격체를 육성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미술 자체의 교육 측면보다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 측면의 교육 기능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과 교사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라는 교육체계 속에서는 인간관계에 틈이 없이 원만한 관계가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기여한다.

학생의 그림은 즐거운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즐겁게 경험한 일을 마음껏 발표하고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이해해 주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 성인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학생의 정직한 상태를 가식 없이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협조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34) Osborne A F, 신세호 역.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배영사. 1968. 서울 p.17

35) Ronald B Aler. 김인자 역, <인간관계화 자기표현>. 중앙적성 2000. 서울 p.5~6

라. 정서적 안목 계발

정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미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미술 교육은 아름다운 대상에 자주 접하게 하여 미적 감정을 예민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며, 정서를 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시각적 경험에 의하여 미적 정서를 기르고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며, 나아가 원만한 인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조형 문화의 세계로 창조, 발전시키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미술 교육은 창작과 감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미술 교육은 이러한 경험 속에서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계발하여,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로서, 일반 교육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예술적인 측면을 조화시켜 나가는 교과인 것이다.

미술교육의 특성은 인간을 주지 주의적 교육 편향에서 벗어나게 하고,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며, 미적 감정을 도야하여 미적 취미를 조성하는 예술적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서, 우리의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미술 교과는 이러한 미술 활동 속에서 조형성을 기록, 창조성을 신장하며, 조형미를 감상하는 가운데 정서를 함양하게 된다.

미술 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중학교 미술 교과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적체험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대상의 특성과 미술의 활용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며 향유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둘째, 표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창의적 발상력을 북돋워 기초적인 표현 능력을 길러 준다.

셋째, 이해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미술품의 시대와 양식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작품과 미술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³⁶⁾

미술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미적 체험으로 정서적 안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표현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정서적 안목 계발’이 미술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은, 예술 활동이 인간의 정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서를 순화시킨다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 정서란,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감정과는 달리 인격적인 감정을 뜻한다. 물론 예술에는 본능적인 감정이 중요하지만 미술 교육에서의 정서적 안목이란 단순한 감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적 덕성을 육성하는 것을 말하며, 예술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성 향상의 교육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Langer는 예술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인간 발달의 첨단이 되며, 이를 도외시할 때에는 도덕적 퇴폐가 따르고, 지적 생활과 종교에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정서적 안목 계발’은 미술 교과의 교육적 특성이기도 하다. 미술은 인간의 정서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감정, 느낌 등의 감각에서 비롯된 미술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 선, 미의 세계이다. 미술 교육은 인성 교육과 뜻을 같이 하여 자신 안에 자연과

36)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1994. p.406

외부로, 인간과 인간에게로 가교를 놓아 ‘통합된 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³⁷⁾

정서의 성장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자지 자신을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일시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정서를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서적 안목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 교육은 오늘날 인간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놓고 볼 때,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크며 앞으로 미술 교육은 이러한 미술교육의 목적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마. 긍정적 사고 육성

미술교육에 있어서 자기표현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관심사를 생각하여 경험한 것을 반영하여 표현함으로써 미술에 더 흥미를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미술 교육은 인간의 심상적 내면성과 기능적 외면성을 도야시키는 인간형성 교육을 중시한다. 특히 인간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인 창의력을 계발시켜 생동하는 정신력과 새로운 이미지를 ‘창의적인 자기표현’과 ‘자유로운 개성의 표현력’을 보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며, 이는 그들의 삶을 생동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힘이 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남과 다르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산출해 내려는 생산적이고 참신한 사고를 뜻한다.³⁸⁾

어떤 법칙이나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37) 김춘일. <미술교육론>. 기린원. 1993. 서울. p17

38) 교육부.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1995. p.144

개방적이고 유창한 사고이다. 미술이란 인간적 형성의 기본이요 관문인 감성에 의존하는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영에서 이루어지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을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미술 교육은 일반적인 하나의 가치보다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장려하는 활동이다. 창의성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과 그 바탕이 되는 인격의 특성을 말한다.³⁹⁾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육성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윤택유같은 역할을 한다.

2). 미술교육의 개선방안

앞장에서 우리나라의 미술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중등미술교육을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미술 이론의 재정립이다. 미술 교육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같이 역사적으로 표현 기능 중심과 창의성 중심, 미술이해 중심의 흐름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 흐름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능 중심 미술교육을 낳은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예술을 단순한 유희주의나 건축, 공예, 디자인 등의 효용위에 추가되는 장식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심지어 일제시대 때 미술을 배웠던 교육 및 예술교육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고루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다.

39) 이수경, 이주연, <창의력 개발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기초연구>, 한국조형 교육학회, 조형교육 제 11집. 1995. p.119~120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를 지닌 교사에게 미술교과를 배워왔으며, 또한 그런 사람들에서 배운 사람들이 미술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는 대학입시의 개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려하고, 그 대학입시 시험은 표현기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로인해, 창의성이나 예술면에서 준비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표현기능을 우선시 하는 영향권은 중.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창의성 수업은 교사가 편하기 위한 도피처의 수단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창의성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미술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의 창의성에 대한 오해로 보통의 미술수업과 같이 학생들에게 재료를 똑같이 준비시키고 제제를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술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창의성이 계발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기에 도피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창의성 중심은 학생중심과 표현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표현과정을 강조하게 되며, 학생의 자연스러운 내적 발달을 중시한다는 명목 하에 결국 교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성은 자칫 방임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⁴⁰⁾

결론적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중등학교 미술교육과정과 시간 운영 체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게 개편하고, 현재 표현 중심에서 벗어나 미술 이해와 감상지도를 강화하여 실생활에 미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발달과정 속에 위치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향상과 지금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예방할 수 있는 정서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40) 이규선 외. 전게서. p60

미술에 대해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미술은 표현을 중요시하는 기능주의가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정서 발달의 교육으로 평생교육인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인 초·중등의 미술교육을 배우고서도 미술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는 것은 교육의 방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교과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며 쉬운 지도가 필요하며, 미술활동이 끝난 후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다른 사람의 작품도 같이 생각해보고 비평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미적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

2. 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1). 감성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외상이나 위기, 상실로 인한 감정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언어로 그러한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은 단어와 연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마음속에 숨겨두어 우울함이나 혼란, 불안, 절망, 좌절 등을 초래한다. 제작과정은 사람들이 감정에 맞서고, 우울증을 극복하며, 외상의 경험을 통합하고, 슬픔과 상실을 경감시키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⁴¹⁾

<표>-1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감성저널그리기	사용하고 싶은 드로잉 재료와 스케치북을 선택하여 '나는 오늘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	감정탐색, 자신과 타인의 이해, 공격성 감소, 자기 존중감 향상

41) 밀키오디, 전개서. p159

	에게 물어본다. 단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단순한 형태와 색깔을 그려본다.	
안정감을 주는 이미 책 만들기	소리나 음악, 맛 또는 향기, 촉각적 느낌이나 질감, 나를 평화롭게 하고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한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그 목록으로 잡지나 콜라주 재료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고 걸표지를 달아서 책으로 만든다.	자신의 위로, 긍정적인 느낌의 창조, 상실 및 외상의 표현
안전한 장소 만들기	현실이건 상상이건, 일생동안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들을 모두 생각해본다. 안전한 장소의 특징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를 그린다.	긴장완화, 완전한 정신적 이미지 발견
감성 지도 그리기	분노, 기쁨, 슬픔, 공포, 타인의 사랑, 자기에 등 감각의 감정을 나타내기위한 다른 색을 사용하여 그린다.	감정탐색, 감정 전달

(2) 놀이 유형의 프로그램

1) 감각을 자극하는 기법놀이

주제를 정하고 결과물을 예상하기 어려운 놀이 활동 프로그램이다. 쉽고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미술의 수업에 흥미를 가지게 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친구나 선생님의 소통보다는 자기 활동을 위주로 수업을 해야 함으로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한다.

<표>-2 감각을 자극하는 기법놀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선긋기를 이용한 놀이	도화지 위에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자유롭게 점을 찍고, 점과 점 사이를 자유롭게 이어본다. 점을 이어져 나타난 도형과 형태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 본다.	점과 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고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이용해 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토론과 생각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제거품 그림	컵에 물을 붓고 세제를 푼 후 색소를 섞고, 붓으로 젖어 빨대로 불어 거품을 만든다. 이때, 거품을 화지에 올려놓고 찍는다.	세제의 성질을 알고 비누거품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성격과 창의력이 길러진다.
핑거 페인팅	밀가루 풀에 각각 다른 색의 물감을 섞어 도화지 위에 풀 물감을 가용해 손가락으로 그린 후 말린다.	풀의 미끄러운 성질을 이용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즐겁게 재료를 탐색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또, 활동적인 수업으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2) 연상놀이

여러 가지 사물이나 모양을 보고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것을 연상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생각을 유도할 수 있고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다.

<표>-3 연상놀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구멍 난 종이에 창의적 표현하기	다양한 구멍이 있는 도화지 위에 연상되는 것을 생각해서 표현해 보게 한다. 완성 후 친구들과 비교하며 이야기 한다.	생각하면서 그리는 활동으로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 친구들의 표현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발상을 할 수 있으며, 친구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인물 변형하여 표현하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리며, OHP필름위에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신의 얼굴과 다른 변형된 얼굴을 상상하여 표현해 본다.	인물표현에 다양한 방법을 접하여 창의적 발상을 키울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에 변화를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으며, 대리 만족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뒷부분 상상하여 표현하기	동화책을 읽어주며,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해 그리게 한다. 완성 후 서로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이야기 한다.	뒤에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해 봄으로써 이야기 구성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

3) 물, 바람, 모래를 이용한 놀이 활동

자연환경 속에서의 놀이 활동은 자연의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더욱 흥미로운 활동이 된다. 물위에 설치 할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하여 보거나 바람개비를 만들어 바람에 의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모래는 촉감이 부드럽고 쉽게 형태를 만들고 해체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놀이 재료이다. 물을 뿌려가며 굵거나 파거나 쌓거나 다른 오브제를 결합하여 즐겁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

<표>-4 물, 바람, 모래를 이용한 놀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모래놀이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물뿌리개로 물을 적절하게 모래에 적신 후 모둠 안에서 각자가 맡은 영역을 표현하고 조형 활동을 한다.	모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쌓거나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모둠별로 활동하면서 협동심도 기르며, 실외수업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비오는날 표현하기	대형비닐의 네 귀퉁이를 잡아 비닐아래에 여러 명이 들어가고 밖에 아이들은 분무기로 비닐위에 물을 뿌린다. 물 떨어지는 소리나 물방울의 모양을 관찰한다.	비오는 날의 느낌을 재료를 이용해 표현해 볼 수 있으며, 단체 활동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하며,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각 청각적으로 학습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4) 역할놀이

모의 놀이에서 성인의 생활이나 외부 현상에 대한 모방은 아동 자신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활동으로 창조적 기능을 지닌다. 모의 놀이를 활용한 수업은 시나리오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학습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창의적 모의 놀이를 통해 학습자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신념에 따라 미술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갖는다. 이러한 모의 놀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신념을 보다 세련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능력도 개발 할 수 있다. 점차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상징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아동부터 활용하면 창의적인 사고와 인지 능력 신장에 효과적이다.

<표>-5 역할놀이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가면놀이	바가지나 풍선위에 종이죽을 올리면서 가면 모양을 만든다. 말린 후 채색하고 투명 락커를 뿌린다. 각자 말은 역할의 가면으로 놀이 활동을 한다.	1)종이죽을 이용한 가면 만들기 과정으로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가면을 꾸미는 미술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 놀이를 통해 연극놀이를 할 수 있다. 2)모듬을 만들어 자신의 가정이나, 학교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분담을 하여 가면을 만들고, 역할놀이를 하면서 학습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며, 학습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3). 무의식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

무의식적인 그림은 어떤 특별한 주제나 방향이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무의식적인 미술은 어떠한 것을 그리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제작한 드로잉, 회화 혹은 그 밖의 모든 미술 형태를 의미한다. 자유연상과 적극적 상상의 결과로 무의식적인 미술활동은 과정을 중요시하며, 이것은 의식의 검열 받지 않은 진실한 표현으로 진실한 감성이 표출된다.⁴²⁾

<표>-6 무의식적 표현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눈감고 난화그리기	도화지를 난화를 그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한 가지 색을 선택하여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선을 긋는다.	안정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그리기	보편적으로 글을 쓸 때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검열되지 않은 무의식 표현
잉크와 끈으로 난화그리기	종이 위에 잉크나 검정 템페라에 끈을 적셔서 선과 형태 만들기 하고 끌어당긴다.	감정의 분출, 무의식적 이미지 강조
물감 얼룩 만들기	종이 위에 크레용이나 파스텔을 이용하여 그린 후 물감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얼룩을 만든다.	창의적이고 이완된 감정의 해방감

42) 말키오디. <미술치료> 최재영, 김진영 역. 조형교육. p127~129. 재인용.

만다라 그리기	흰 종이에 컴퍼스나 접시를 대고 연필로 원을 그린다. 원한다면, 직접 원을 그릴 수도 있다.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선이나 색, 형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안을 매운다.	자기이해, 타인의 이해, 감정의 이완
---------	---	----------------------

(4) 자아개념을 위한 프로그램

자아개념이란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가 하는 개인의 개념을 뜻한다. 자아개념을 위한 미술활동은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기통찰의 기회를 줄 수 있다.⁴³⁾

<표>-7 자아개념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자화상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릴 수 있게 하며, 자신의 특징적 모습을 중심으로 그리게 하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자기정서를 이해. 자기 동기화.
자소상	눈을 감고 한 손으로 얼굴을 더듬고, 다른 한손으로 촉흥을 빚어 자소상을 만든다.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 확대.
이름 꾸미기	자신의 이름을 사실적으	자기 동기화 및 표현

43)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4. p119~124. 재인용.

	로 묘사하거나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력 강화, 감정의 이완
광고지 만들기	잡지나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을 광고하는 광고지를 만든다.	자기 자신의 이해 자시표현의 성취감
가면 만들기	도화지에 자유로운 형태로 자신이 갖고 싶은 얼굴의 가면을 만든다.	자기 자신의 이해 자기표현의 성취감
내 마음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속에 자기의 생각 표현하기.	분열된 자아의 통합, 삶의 본질파악, 자기이해
인생 콜라주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물이 하는 말을 상상하여 써본다.	관심분야의 파악, 긍정적 미래관에 대한 비전 제시
나의 안과 밖	빈 상자를 이용하여 밖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 안은 내가보는 '나'를 표현한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지각하고 정립.

V. 결 론

21세기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는 오늘의 청소년이다. 청소년의 미술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의 방법은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치지 않고 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우리의 미술교육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개체의 양면적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차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도 전략을 개발하는 심리적 접근에 기초한 미술교육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리학적 접근은 청소년이란 개체가 생애 발달과정에서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개인차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치와 방법이 그들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지원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지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의 개체발달의 과정과 사회적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개체발달의 과정과 특정행동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예언하여 발달과정에서의 청소년기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술교육에서 청소년기에는 ‘예술 교육적’ 관점에서 특수한 기능을 길러 미술의 장인(長人)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감상을 하는 미적 경험을 갖게 하여 기능주의의 미술성향이 아닌 예술가적 품성이라고 생각되는 미적 감수성, 정서, 시각적 사고, 창의성 등의 자질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에,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은 미술대학 또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미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을 경험 하도록 하여 누구에게나 다 잠재하고 있는 예술

가적 품성과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기 발달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성 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미술교육을 통해 청소년 각자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또한 사회와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통로를 열어 올바른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미술교육은 실제로 그리고 꾸미고 만들고 쓸 수 있는 표현기술을 익힘과 동시에 예술품을 감상하고 감식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능을 익히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 미술교과는 일반교과와는 다른 미술만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미술의 특성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인 것이다.

또, 미술교육은 문제행동을 하고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미술교육에서의 미술치료의 효과성으로 접근 하여 그들이 가진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미술로 표현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가진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에게 문제에 대한 적정한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문제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 자신들도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출하지 않고 있던 자신의 문제의 무게를 미술의 매체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은 아동의 미술교육이나 대학에서의 미술교육에 비해 매우 독특하고 기본적인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다른 교과 교육이나 강조 사항에 밀려 형식적 교육에만 멈춰있어도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닌 것이다. 미술교육은 매우 기본적이고 주요한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은 현재 놓여진 상황과 여건이 나쁘고 목적이나 내용, 방법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 즉, 총체적인 부실과 왜곡에 처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론 면에서도 새로워 져야하고 그 제도나 실천방안도 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발달의 정서적 순화로서의 감성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미술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감성교육과 주도적인 학습활동으로, 청소년들은 감성을 표출하는 계기고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으며, 주도적인 체험을 통하여 보는 눈이 새로워져서 청소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미적인 안목을 육성하고 조형능력을 신장시켜, 창의성의 개발, 감상의 함양과 더불어 미술의 치유적 기능까지 포함해 미술을 청소년 자신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청소년을 길러내는 교양교육에서 필수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1994. 서울
- 김성희 <전공미술> 2006. 서울.
- 김정희.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서울
- 김춘일. <미술교육론> 홍익사. 1985, 서울
- 남승희 편역. <청소년은 누구인가> 기린원. 1993. 서울.
-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4. 서울.
- 임승권. <정신위생>. 양서원.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1997. 서울.
- 한상철 외, <인간이해와 교육>. 중앙적성출판사. 1995. 서울.
- 한상철. <청소년학>. 학지사. 2004. 서울.

교육부, <초등학교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1998 서울.

교육부.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서울. 과학사. 1995.

교육부.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과학사. 1995.

<논문집>

김용권, <우리나라 미술 교육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이규선, <오늘의 미술교육, 교사들의 현장 발언>, 월간미술 1994년 7월호

유혜경, <문화의 세기를 지향한 예술교육 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2000.

전성수, <바람직한 미술과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집.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5.

전영주. <청소년 자살구상과 관련 변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2000.

정여주. <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한국 예술 치료학회. 2002.

한명희, <창조성 교육>, <새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86. 서울

권준범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 요인에 대한 연구>. 사항미술교육논총 제10집 2003 한국미술치료학회.

김민곤. <어린이 조형활동 창조>, 미술세계 1985.

이수경, 이주연, <창의력개발을위한 미술프로그램 기초연구>, 한국조형 교육학회, 조형교육11집. 1995.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재영.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미술교육 접근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2.

한국교원대학교 예술교육연구소. <21세기 예술교육의 위상과 역할>, 제5회 학술세미나논문집. 1997.

<학위논문>

전만경, <고등학생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통한 미술치료활용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최용환 <미술교육이 EQ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최재영 외. <유아미술치료>, 수원여자대학. 2002

<번역문>

로웬펠드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2001, 서울

Apple M W 박부권, 이해영 역, <교육과 이데올로기>. 한길사 1987, 서울.

Luella Col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Rinehart & Winston Inc, 1950.

Osborne A F, 신세호 역.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배영사. 1968. 서울

Peter Salovey & John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6

Ronald B Aler. 김인자 역, <인간관계화 자기표현>. 중앙적성 2000. 서울

Victor Lowenfeld W Lamitain. 미진사. 1998, 서울,

참 고 도 판

<표>-1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예



감성저널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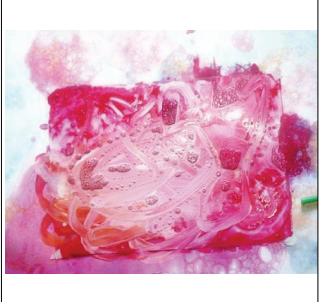
안정감을 주는 이미 책 만들기



<표>-2 감각을 자극하는 기법놀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



선긋기를 이용한 놀이



세제거품 그림



핑거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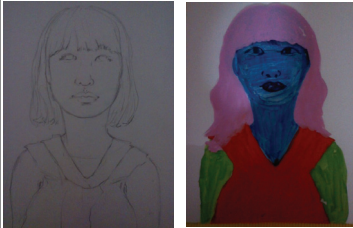
<표>-3 연상놀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



구멍 난 종이에 창의적 표현하기



이야기 뒷부분 상상하여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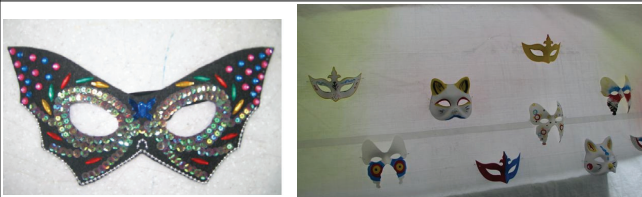
인물 변형하여 표현하기

<표>-4 물, 바람, 모래를 이용한 놀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예



모래놀이

<표>-5 역할놀이 프로그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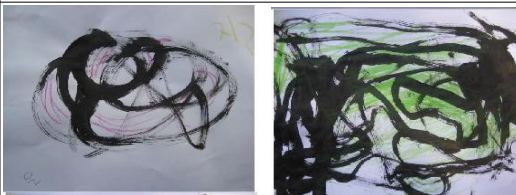


가면놀이

<표>-6 무의식적 표현 프로그램 예



눈감고 난화그리기



잉크와 끈으로 화그리기



만다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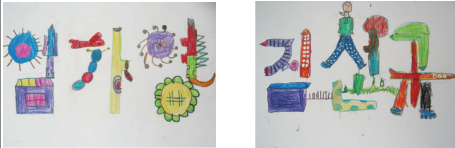
<표>-7 자아개념 프로그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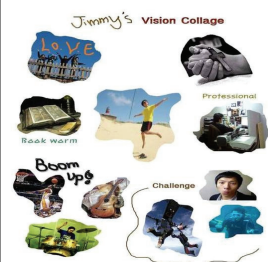
자화상 그리기



자소상 만들기



이름 꾸미기



광고지 만들기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Psychological Approach to art education and propose of method

Kim, Hyo Jung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the Art Education as a subject which affect important role in shaping values in adolescence and contributing substantially to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People are struggling with psychological or emotional conflicts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young people are express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nstability.

In other words, an outlet for self expression as well as a various of emotional purifying are required for adolescents, who are not free from social constraints.

In this regard, if the emotional self-expression through art activities can purify emotion of young people, it will be a very meaningful act becaus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are the best task for youth.

Nevertheless, the current private education is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And the uniform system is hardened. In recent years, arts subjects (music, art) was reduced to elective courses. However, the main subjects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has been further enhanced

In this important time, Youth are wandering in the confusion of

values and are exposed to the derailment rather than establish the identity. As a result, maladaptive symptoms are appearing. In other words, it is a serious social problem, which brings great suffering to young people.

From now, we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of human emotion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student), as an important step. And we also treat the purifying the emotions of art activities for psychologically unstable youth as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o we will need to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art education by understanding not only the relevance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rt education but also emotional expression by purifying the emotion. Finally, on the basis of the above, we will look into the status of the secondary art education in our country and will analyze the formation of values through the school of art education